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3.(화) 09:00 (2026. 11. 3.(화) 석간)

2026년 제14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

- 11월 3~4일 서울에서 개최한 포럼에 아세안·한국·중국·일본 등 50여 명 참석
- 일하(려)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역량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그리고 세계은행**은 **'제14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11월 3~4일, 서울). 이번 포럼은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아세안 11개국(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공유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4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 포럼은 **'직무역량에서 일자리로: 아세안+3 지역 AI 맞춤형 인재 양성'**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대응해 아세안+3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각 국가별 정책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타라 베테일(Tara Béteille) 수석 경제학자**는 아세안 지역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AI 시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준비 단계에 따른 시사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의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하(려)는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AI 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AI+ 역량 UP 프로젝트**'와 대표적인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한다.

* AI+ 역량 UP 프로젝트: 노동시장 진입기·활동기·전환기의 국민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AI 훈련 인프라 확충 및 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AI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프로그램: AI 시스템 개발, AI 응용 SW 개발 등 직무별 현업 엔지니어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용일 직무능력기획부장은 전 국민의 디지털·AI 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공통능력 개편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사례, 그리고 국민의 축적된 디지털 직무능력을 증명하는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각 회원국이 **직접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AI 관련 공공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2개 직종에서만 단계별 구분 없이 마련되어 있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직종을 세분화하고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구분하는 체계적인 AI 훈련정책을 세계은행과 우리나라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설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국제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만들기 위한 AI 직업훈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 인적자원개발 등 AI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변화로 촉발된 충격은 한국 노동자보다 개발도상국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클 수 있다"라며, "공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노동자의 업스킬링(upskilling)과 리스킬링(reskilling)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4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요
2. 제14차 아세안+3 HRD 포럼 개회사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162)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2-7163)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HRD협력부	책임자	부 장	박형기 (032-509-1821)
		담당자	과 장	김지수 (032-509-18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제14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요

○ **(배경)** '12년 제7차 ASEAN+3 노동장관회의에서 한-ASEAN 신규 사업으로 채택 이후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및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석해 **직업능력개발 분야 정책경험·지식 공유**

○ **(일시)** 2026. 11. 3.(화) ~ 11. 4.(수), 2일간

○ **(장소)**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서울 강남

○ **(주최)** 우리부, 인력공단, 세계은행('15년 이후 매년 공동개최)

○ **(대상)** ASEAN+3(아세안 11개국* 및 한·중·일) 인적자원개발 분야 **정부 실무자**,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명**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 **(주제) 직무역량에서 일자리로: ASEAN+3 지역 AI 맞춤형 인재 양성**
(From Skills to Jobs: Building AI-Ready Workforce Across ASEAN+3)

11.3.(화)	
09:00 ~10:00	· 개회사 – 기획조정실장 – 세계은행 아태지역 국장 · 환영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축사 – ASEAN 대표부 대사(영상) – ASEAN 사무차장(영상) · 기조연설 –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10:15 ~11:15	· 한국 사례 세션 – 직업능력정책국장 – 직무능력기획부장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11:15 ~13:00	· 오찬
13:00 ~14:15	· 정책설계세션 오리엔테이션
14:15 ~15:30	· 정책설계1: 국가별 정책과제 설정 및 구체화
15:45 ~17:00	· 정책설계2: 국가별 제도적·기술적 기반 탐색
11.4.(수)	
09:00 ~10:30	· 정책설계3: 사업주·훈련기관 등 이행체계 수립
10:45 ~12:00	· 정책설계4: 재원 조달, 운영 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2:00 ~13:00	· 오찬
13:00 ~14:30	· 정책설계 성과발표 및 협력 논의
14:30 ~14:40	· 소감 – ASEAN 사무국 노동서비스 과장
14:40 ~15:00	· 폐회사 – 국제개발협력팀장 – 세계은행 아태지역 국장
15:00 ~18:00	· 산업시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붙임 2 **제14차 아세안+3 HRD 포럼 개회사** ※ 현장 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제14차 아세안+3 HRD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세계은행 루이스 벤베니스트 아태지역국장님,
세계은행 타라 베텔리 수석경제학자님,
메가 이레나 아세안 노동 및 공공서비스 과장님,
특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APT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아세안 사무국,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신 세계은행,
그리고 실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병훈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세안+3 대표단 여러분, 국제기구, 연구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RD 포럼은 2012년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서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되고 2013년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기구를 초청해 인적자원개발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일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조성한
APT 기금을 최초로 활용하여 개최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아세안+3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어디에서나 AI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손 위의 핸드폰부터 전쟁의 양상까지
많은 것들이 소리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노동시장,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터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I 도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AI는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기회, 모두의 성공을 만드는 열쇠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만들기 위한
AI 직업훈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8월에 열린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9월에 열린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AI에 대응하고 AI를 활용하는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ILO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AI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재교육과 평생학습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ILO 사무총장 보고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이번 포럼은 "AI 맞춤형 인재 양성"을 주제로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우리가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찾는 유용한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99개의 실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중 12개의 과제는 인재육성과 관련한 것으로
생애 전주기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
AI 인재 확충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AI+ 역량 UP 프로젝트'를 추진해
노동시장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의 단계별 맞춤형 훈련을 통해
모든 국민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약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계획하는 KDT AI 캠퍼스 등
AI+ 역량 UP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정책 설계를 위한
디지털 지식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이행체계 수립, 재원조달 등 3단계에 걸친
설계 과정을 통해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책 사례에 대한 공유도 중요하지만
실제 연습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정책설계 세션을 통해
회원국의 정책역량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 나라도 AI 전환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전에 대한 해결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책임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럼의 마지막에는 국제협력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간 협력사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AI 시대에 아세안 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가 초석이 되어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 사업,
아세안 회원국 대상 TVET 석사학위 사업 등
그간 성과를 나타낸 사업들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향한
진짜 성장을 아세안+3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AI 시대에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SEAN+3 회원국 참석자분들께 많은 참여와 관심,
더욱 긴밀한 연대를 이어나가길 요청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을은 평화와 풍요의 계절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과 함께 K-Culture를 한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도 풍성한 성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